

제16회 아산서평모임

2017. 9. 27.

武備의 文獻學

-書評 : 『전쟁의 문헌학』 (2017, 열린책들)

함영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alongdiri@hanmail.net)

1. 김시덕 선생의 연구행보

이 책의 부제는 “15~20세기 동중국해 연안 지역의 국제전쟁과 문헌의 형성·유통과정 연구”이다. 6세기 동안 동중국해 곧 중국이 일부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전쟁과 관련한 문헌의 형성과 유통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자 김시덕 선생이 임진왜란을 근거로 하여 진행한 동아시아 전쟁학 연구의 일련의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김시덕 선생은 외국인으로는 드물게 일본고전문학학술상을 수상하게끔 한 역작인 『異國征伐戰記の世界 -韓半島, 琉球列島, 蝦峽地』(笠間書院, 2010) (한국어역, 『일본의 대외전쟁』 2016)를 필두로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근세편』(2010, 도서출판문), 『그들이 본 임진왜란』(2012, 학교재), 『교감해설 징비록』(2013, 아카넷) 등 임진왜란과 직접 관련된 문헌을 해제·교감 역주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흥미롭게 연구하고 있는 신진학자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2015, 메디치미디어)라는 문제작을 식견있는 독자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김시덕 선생이 보여주는 학문적 행보와 저작은 일찍이 한국의 일본학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로를 크게 이탈하는 것이다. 일본의 문학이나 역사, 사상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의 외국문화 수용사를 연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그가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일본인 연구자가 보지 못하는 일본의 본질적인 부분”을 연구했다. 그러므로 그의 연구는 일본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학문대상으로 정한 ‘전쟁의 문헌학’을 상대적으로 병학의 전통이 약한 한국에서 선보이려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얼마간의 파란도 감수하고 있다.

한국학계에서 병학, 또는 군사학으로도 불리워지는 전쟁학은 아주 생소한 분야는 아니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文이 아닌 武의 입장에서 문헌학의 방법론으로 논의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전쟁의 기억을 담고있는 구체적인 문헌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것은 至難하기도 하지만 支離하기도 한 작업이라 그 성패를 단언하기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볼 필요가 있는 학문적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

2. 전쟁의 문헌학이라는 시각

『전쟁의 문헌학』의 저자, 김시덕 선생은 동중국해 연안의 각 지역에서 상대국의 문헌과 상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형성된 주요한 원동력은 상대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경계와 준비, 즉 武備가 그 근원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찰은 현재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또 ‘임진왜란’과 같은 국제 전쟁이 동중국해 연안지역의 문헌형성과 유통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도 한다. 이 역시 진실이 담겨 있다. 임진왜란의 경우 그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참전한 명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문화적 교섭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시각을 견지했을 경우, 그 비중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韓日간에 서로의 정보를 접수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동국통감』과 『징비록』이 국제전쟁의 결과로 유통된 것인가? 『동국통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징비록』의 경우도 그것이 임진왜란의 산물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 인해 유통되었던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 두 책은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이 수행한 전쟁에 대한 다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전쟁 자체가 문헌형성과 유통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전쟁이라는 무력 충돌을 통해 상대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 곧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을 지언정 말이다.

『이칭일본전』과 『화한삼재도회』는 그야말로 일본 이해의 정보원으로서 백과전서적 도서를 활용한 사례로 ‘전쟁대비’라는 武備的 관점보다는 隣國에 대한 관심사의 반영이라는 시각이 더욱 합당하다. 기실 저자 역시 이러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기무라 켄카도 그룹에 대한 조선 문사들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지 않았나? 기무라 켄카도에 대한 조선문사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문예공화국’의 일면이다. 거론하고 있는 『해동역사』의 기록 역시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19세기 이후의 박물관고증학적 서적의 학적 관심사라고 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해석이다. 물론 저자는 “통신사의 근본목적이 창화와 같은 문화교류가 아니라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인원명단의 변화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3. 『동국통감』과 『징비록』의 일본 전래

『전쟁의 문헌학』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국통감』과 『징비록』의 일본 전래에 대한 연구는 김시덕 선생의 연구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학계에 기여한 뚜렷한 족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라졌던 『동국통감』의 판목을 찾아내어 일본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물론 『동국통감』을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상호이해의 시각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징비록』의 일본유행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은 조선에서의 『징비록』 독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본이 조선을 이해하는 시각을 전환했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그 성과가 매우 크다. 『징비록』으로 인해 임진왜란 자체에 대한 사실 인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인상이 전환되었다는 보고는 수준높은 문헌연구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수용하는 일본의 관점과 그 텍스트의 의미이다. 『동국통감』의 경우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官撰史書이지만 그 정리의 시각이나 역사서술의 풍부함에서 후대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서가 아니다. 『동국통감』은 1484년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 주도되었다가 1485년에 개찬된 것으로 낭만적 고대사 인식이 엄격한 춘추대의론에 입각한 경직된 포폄으로 전환된 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테면 훈구관료와 신진사람의 역사관을 절충한 셈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 정말 일본은 하야시 가호의 주장처럼 “『동국통감』보다 더 자세하고 볼만한 것이 없어서” 본 것인가? 하야시 가호는 『동국통감』의 일본과 관계된 고대사 부분에 대해 “자기 나라의 나쁜 역사를 미워하여 감춘 것”이라고도 했다. 토쿠토미 소호와 아베미쓰이가 나눈 대화처럼 “조선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문헌”이며, “그 체제가 잘 갖추어진” 것인가? 왜 하필 『동국통감』인지 『동국통감』 이후의 다양한 조선의 수준높은 私撰史書에 대해 일본은 왜 관심을 보이지거나 수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동국통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을 보면 볼수록, 『동국통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 점은 더욱 깊어지는 아쉬움이다.

3. 일본 지식인 집단에 대한 저자의 연구시각

『전쟁의 문헌학』을 읽는 또 다른 관점 포인트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다. 김시덕 선생은 일본 지식인 집단의 주요한 일원으로 포착된 인물들에 대한 평론에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찌보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가이바라 옛켄과 아메노모리 호슈에 대해 그는 “이들은 자신이 놓인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가능한 객관적 인간이 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기노시타 준안에 대해서는 이덕무가 『청령국지』에서 “순일한 주자학자로 비교적 높게 평가했으나 그의 유명한 두 제자인 아라이 하쿠세키와 아메노모리 호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한 이후에 따로 평론하지 않았다. 1711년 사행기록, 『강관필담』에서 일본측 상대역으로 우리 통신사를 곤혹스럽게 했던 것으로 그려진 아라이 하쿠세키에 대해서는 출세와 몰락에 대한 사실과 성대중의 『청성잡기』의 기록을 전재할 뿐 역시 따로 평론하지 않았다. 하쿠세키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론은 하지 않았다. 이어서 조선측에서 두 인물을 평가한 것을 계속 제시하고는 최종적으로 두 인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조선 사행을 상대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강격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 국내적으로는 합

리적인 대외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호슈와 하쿠세키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나 호슈의 심정이 조선인이나 한국인에게 왜곡되어 이해되는 것에 대해 ‘쓸쓸함’으로 평가를 대신했다.

한국의 강렬한 민족적인 감정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관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어쩌면 호슈처럼 ‘주변인의 중얼거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연구자의 관점이 이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국적을 가진 연구자가 ‘객관적인 학문’이라는 무지개를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오래된 우물을 찾는 우직함이 있다면 학자로서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주변인적인 예민한 감각은 지지할만한 것이다.

4. 일본지식인 집단의 조선학에 대해

일본 고학파의 거장 이토 진사이의 아들 이토 토가이의 조선학에 대한 소개는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문제적이다. 그가 제시한 유성룡의 서신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양한 저작들, 특히 저자의 관심사와 직결되어 있는 『계림군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부연될 필요가 있다. 그의 조선학은 그의 중국학과 연동하여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학문적 자신감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토 토가이의 일본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좀 더 기다려지는 바가 있다.

5. 조선 지식인 집단의 일본학에 대한 논의전개 방식

김시덕 선생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루트를 통신사에 의한 인적정보 습득루트와 『이칭일본전』, 『화한삼재도회』 등 백과전서적 문헌을 들었다. 전자는 그 내용이 주변에서 바라 본 일본에 대한 정보를 집성한 것이고, 후자는 일본의 문물에 대한 백과전서이다. 모두 일본에 대한 지식을 집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은 친절하지 않고 다소 산만한 느낌을 준다. 이를테면 제2장 조선 지식인 집단과 임진왜란·일본정보 아래 제1절 『이칭일본전』과 『화한삼재도회』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칭일본전』

『이칭일본전』에 인용된 병학문헌과 한치윤 『해동역사』

조선시대 후기에 읽힌 일본의 병학문헌 : 『난포문집』과 『본조무렵전』

『화한삼재도회』와 조선

18~19세기 전환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임진왜란 7년의 집성작업

이러한 목차는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문헌학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논제중심보다는 문헌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방법론상의 기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사의 검

토와 1차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정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풍성한 자료가 명료한 시각과 논리 위에서 제시된다면 그 논의의 설득력이 더욱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전쟁의 문헌학 3부작을 기다리며

이 책 『전쟁의 문헌학』의 저자 김시덕 선생은 전쟁과 문헌이라는 키워드로 이제까지 한국학계가 가지 않았던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장차 유구와 네덜란드, 미국과 영국, 러시아까지 그 연구시야를 넓히려고 한다. 무척 기대되는 학문적 기획이자, 고단한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대하며 응원한다.

그는 “전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은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것이 히틀러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쟁학 연구에 대한 정당한 변이 아닐까!

얼마 전 김시덕 선생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당신은 왜 연구·집필 활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집필하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무언가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기에,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손이 얼어가면서도 소련 사람들은 글을 썼습니다. 그 뿐입니다.”라고도 했다. 난 김시덕 선생의 평생 독자이다.